

‘인식의 새로고침’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인식 개선을 위해 모든 유아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따뜻한 마음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표현 방법

‘장애우’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벗 우(友)자를 쓰는 장애우는 들여다보면 좋은 말 같지만 오히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장애우 대신 **장애인**이란 말을 쓰도록 해요.

‘불구자’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불구’라는 말을 풀이하면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보다는 **지체장애인**이란 순화어를 쓰는게 좋아요.

‘병어리 장갑’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오랫동안 굳어져 온 표현에도 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병어리 장갑인데요. **손모아장갑**으로 표현해주세요.

‘정상인’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장애인의 잘못된 인식은 반대말인 정상인이라 부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지칭할 때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주세요.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유명한 사람이 되면 흔히 장애를 ‘극복’했다고 말합니다. 극복이란, 처해있는 난관을, 시련을 불굴의 의지로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극복이라는 말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겨낼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은연중에 인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견딜 뿐이다>-시각장애인 전재덕씨의 글 발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식어가 '장애를 극복한'이다. 그 힘들고 불편한 장애를 무슨 수로 극복한단 말인가? 되돌릴 수 없으니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 뿐이다. 나는 성자가 아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사실 비장애인들의 한가로운 생각일 뿐이다." 전재덕 씨는 자신의 공연을 보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공연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평배한 특별함에 대한 숭배와 배려가 오히려 단절의 벽을 세워 넘어설 수 없는 고림을 만들거가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배려가 그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위로와 도정에 불과합니다. 많은 장애인은 특별함이 아닌 비장애인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평범함을 원합니다.

출처: <특수교사, 교육을 말하다>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같은 말인가요?

흔히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가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고,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인도 아닙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마비가 있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지체장애 학생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없다면 꼭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학습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보여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 등으로 인해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은 장애는 없지만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됨
2. 전주아름유치원의 모든 유아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배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dis/abled/person(불/가능한/사람)이 아니라
This/abled/person(여기/할 수 있는, 가능한/사람)입니다.**

2022. 4. 15.

전 주 아 름 유 치 원 장